

“아이들 다니는 길인데...” 스쿨존 불법주정차 ‘여전’

광주 남구 개학기 집중 계도·단속

오는 13일까지 초교 23곳 인근 순회 교문 인근 하교 차량 정비... ‘역주차’도 “통행 불편·사고 위험 ↑ ... 시민의식必”

“계도·홍보 덕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었지만, 카메라가 없는 곳은 여전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모두 잘 지켜야겠죠.”

지난 5일 김상태 광주 남구청 교통지도팀장은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차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남구는 개학기에 맞춰 지난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초등학교 23개소 인근의 스쿨존 총 55곳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

스쿨존은 2021년 10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전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고정식 카메라로는 모든 부분을 살필 수 없어 이동식 단속이 병행된다.

이날 오후 2시 10분께부터 김 팀장과 부서 직원 3명으로 이뤄진 단속팀은 사이렌과 확성기가 구비된 교통지도차 1대와 이동식 카메라로 불법



광주 남구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13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5일 김상태 광주 남구청 교통지도팀장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불로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형우 기자

주정차를 적발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동원해 불로초등학교 일대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이곳 교문 근처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있었지만, 비상등을 켜 채 정차 중인 차량이 즐비했다.

이해 고장식 카메라는 15분 단위로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잠깐 세울 시 곧바로 단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일뿐 불법은 변함 없어 김 팀장은 확성기를 통해 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부분은 즉시 움직였고, 일부는 창문을 열고 “아이만 태우고 금방 빠지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두 번째 단속 지역인 불로초등학교 일대는 고정식 카메라가 없어 불법 주정차가 더욱 많았다.

불로초 외에도 송원·무학·대성초등학교의 경우 고정식 카메라가 없어 다른 스쿨존보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주정차 중에선 정상 차선과 반대로 세우는 ‘역주차’도 있었는데, 이 같은 차량은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게 김 팀장의 설명이다.

때문에 김 팀장은 이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동하세요”라고 알렸으나 요지부동하자 단속 차에서 내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김 팀장은 차량 앞면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결이 안 돼 1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 팀장은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선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통행 불편은 물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 사고 위험도 커지기에 특히 시민의식을 챙기고 적극적 주차장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남구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23년 2천542건 ▲2024년 1천366건 ▲2025년 1천602건 등이다. /서형우 기자

제주항공 참사 잔해물서 ‘유해 추정’ 무더기 발견

최근 7점 추가...9점 중 1점 인골 확인 유가족, 오늘 청와대서 규탄 기자회견

12:20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서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돼 유가족들이 당시 수습 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

청 과학수사대가 진행한 사고기 잔해물 제조사 및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7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당국은 지난 5일과 지난달 28일에서도 유해 추정 물체를 1점씩 발견했다. 이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거쳐 희생자 중 한 명의 정강이뼈로 확인됐다.

나머지 8점에 대해서는 국과수가 인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희생자의 DNA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까지 이뤄진 작업을 통해 톱백 67개가 재

분류됐고, 휴대전화 4개와 의류·가방 등 개인 소지품도 대량으로 나왔다.

수습된 유류품은 대형 봉투 64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보관만 됐던 잔해물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되는 현재의 사태는 초기 수습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유가족들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당시 수습 당국을 규탄하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인재영 기자

“여수 영아 학대·살해 부부 엄벌을” 진정·탄원 봇물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소에서 숨지게 한 친모와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30대·여)씨와 B(30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 최

근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탄원서가 1천500여건 이상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소에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이

들의 범행이 고소란히 담긴 유튜브 영상 일부가 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에 빚대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5일 게시됐다.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기준 약 3만명이 동의했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인재영 기자

‘외국인 착취’ 고흥 굴 양식장 전방위 조사

수사·노동 당국, 혐의점 확인 중 郡, 고용 사업장 실태 전수조사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착취 의혹에 대해 관계 당국이 조사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섰다.

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흥 외국인 계절 근로자 노동 착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확인 및 사건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경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흥노동부 여수지청도 법무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될 시 고흥군은 해당 사업장의 계절 근로자 배정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고흥군은 관내 계절 근로자 고용 주들로부터 임금 계좌 지급 원칙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또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과 임금 지급 방식,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집중 조사 항목은 ▲임금 체불 및 대리 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 등이다.

한편 이번엔 제기된 착취 의혹은 지난 4월 광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이 고흥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지난해 11월 계절 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해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국적 노동자 A(20대·여)씨가 임금 착취와 함께 외출 제한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피해 노동자가 지난달 21일 숙소를 탈출한 이후 열흘이 넘도록 관계 기관이 책임을 미루며 신속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중거 인벌 정황까지 포착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찬용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